

美 “북 미사일 전력 증강에 군사수단 불사”

북 미사일 위기의 5가지 진실

뉴욕타임스(NYT)가 '북핵 위기를 둘러싼 5가지 지명된 진실'이라는 칼럼을 통해 외교가 '가장 덜 나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트럼프 북한 전략 실패**
트럼프는 지난 1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일어났음.
- 오바마-부시 행정부의 대북 전략도 별무효**
국제 생존을 위해 핵 능력을 개발하기로 마음먹은 북한에 대해 미 정부는 강한 전략을 구사해 왔으나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했다. 김정일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은 더는 신뢰성이 적어 보임.
- 중국의 압력이 특효약은 아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압력은 핵 개발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고, 중국의 압력에도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함.
- 서방의 군사옵션은 끔찍한 것**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폭격해 성공을 거둘 수도 있지만,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공격해 새로운 한국전쟁이 발발해 100만 명의 인명 피해와 1조 달러의 물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가장 덜 끔찍한 옵션은 외교**
서방국가 일부 제재를 완화하고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대신 북한 속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데 목적을 둔 외교에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덜 나쁜 방안. 중국도 큰 그림에서 지지하고, 북한 일부 인사도 전향적임.

연필뉴스

북 ICBM 발사

헤일리 유엔 美대사

“외교적 해결 가능성 빠르게 닫아

안보리 대북 제재 새 결의안 추진”

미국은 5일(현지시간)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핵·미사일 전력 증강을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히 소집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는 명백한 군사력 증강”이라며 “해야 한다(if we must)” 대북 군사수단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은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을 빠르게 닫아버리고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가 가진 여러 능력 가운데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considerable military forces)”이라며 “미국은 스스로와 우방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 능력들을 최대한도로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해야 한다면 그것(군사력)을 사용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과의 북한 교역국 간의 ‘교역제한’ 카드도 빼들었다. 그는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과의 교

역을 허용하는 나라, 심지어는 장려하는 나라들이 있다. 이런 나라들은 미국과의 교역도 계속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국제 안보에 대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에 대해 우리의 교역 자체는 달라질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만 주시하는 게 아니라, 이 불법정권과 사업하기를 선택한 다른 국가들도 지켜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헤일리 대사는 이번 북한의 ICBM 발사를 계기로 새로운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대북 유엔 결의를 제안할 방침”이라면서 “북한의 새로운(전력) 증강에 비례해 국제사회가 대응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며칠 안에 안보리에 결의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과거의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태도를 바꾸는데 미흡했다면서, 이번에는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몰타기’나 ‘답보’에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 후 채택된 고강도 대북제재 2270호와 2321호 결의에 이은 초강력 대북제재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면서 내용과 수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헤일리 대사는 “시간은 부족하고 행동은 필요하다. 국제사회가 함께 행동하면 파국을 막고 이 세상에서 거대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는 말로 유엔 회원국들의 협조를 촉구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오전 평안북도 방천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고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알립니다

오피니언 새 필진...칼럼 깊고 다양해집니다

테마칼럼

서효인 시인, 고규홍 나무칼럼니스트, 박상현 맛칼럼니스트, 이덕일 한가람연구소장

광일춘추

황현산 문학평론가, 복거일 소설가, 김민규 충남대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종교칼럼

변찬석 천주교 신부, 장형규 원불교 사무국장, 장현권 서정교회 목사, 원목 선덕사 주지

광주일보가 필진을 새롭게 꾸렸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로 구성된 필진은 독자들에게 폭넓은 사유와 통찰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독자와 만나는 ‘광일춘추’는 전국 5개 지방신문사 공동칼럼입니다. 광주일보가 추천한 황현산 문학평론가를 비롯해 복거일 소설가, 김민규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부 교수가 새롭게 참여합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계속 집필합니다. 또 같은 날 게재되는 ‘종교칼럼’은 변찬석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정사목 원불교 사무국장 장현권 서정교회 목사, 원목 선덕사 주지는 변함없이 독자 글을 지킵니다. 목요일 게재되는 ‘테마칼럼’에는 프 로야구 선수 출신이자 ‘야구칼럼니스트’로 유명한 서효인 시인의 ‘좌측담장’이 신설됐습니다. 고규홍 나무칼럼니스트의 ‘생각 나무’, 박상현 맛칼럼니스트의 ‘맛있는 이야기’,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의 ‘역사의 창’은 독자와 만남을 이어갑니다.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문묘한 정신과 전문의, 정봉남 순천기적의도서관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월요광장’은 변함없이 게재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光州日報社

광주디자인센터 왜 이러나

박유복 원장 부인 회사에 수천만원 지원...수익사업 유치보상금도

시 감사 12건 적발...7건 징계

광주디자인센터가 박유복 원장 부인의 회사에 수천만원을 지원했다가 광주시 감사에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디자인센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12건을 적발해 시정과 주의, 개선조치를 내리고 7건에 대해서는 징계와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부당하게 지급한 7100여만원은 환수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 디자인센터는 2015년 7월 ‘산업화 디자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I사에 40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이 회사는 디자인센터 원장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곳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배우자가 임원이면 수의계약을 줄 수 없다고 한 센터 임직원 행동강령과 지방계약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감사 시작 전 지원금이 부당지급된 사실을 적발해, 4000만원을 회수했다.

또 감사결과 연구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원장 등 3명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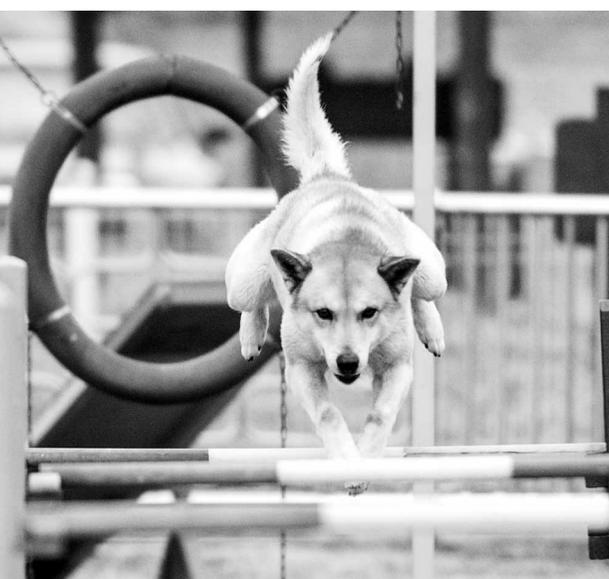
드메이드 선물바람회 행사’ 등 직영해야 할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모조 합에 재워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수익사업 유치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지급대상이 아닌 타 기관 직원에게 570여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5년 규정상 지급대상이 아닌 광주 3개 구청 직원에게 190여만원을 지급하고, 기부금 수입을 휘장사업으로 분류해 38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디자인 연구지원실을 임주 대상이 아닌 일반 기관에 부당하게 임대하고 임대시설 임대료를 멋대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신규 채용 응시자격 기준 적용 부적정, 가전기업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 추진 절차 부적정 등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한편, 2006년 설립된 디자인센터는 디자인진흥 및 지역디자인특화사업, 기업의 디자인 개발지원, 디자인 인력 교육 및 훈련, 신기술 보육과 창업, 디자인비엔날레 등 전시사업 등을 수행한다. 올해 예산 규모는 170억원 가량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진도개, 경찰견 투입된다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가 선별과정과 훈련 등을 거쳐 경찰견으로 활약한다. 2년 전 진도개 2마리가 군견으로 등록되기는 했지만, 경찰견에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도군은 6일 경찰교육원, 전남대와 진도개의 경찰견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진도군은 경찰견 활용을 위한 진도개를 무상 지원한다. 경찰교육원은 폭발물 탐지·수색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도개 훈련과 관리를 맡는다. 전남대는 진도개의 경찰견 활용에 적합한 상품 개발을 위한 진도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양육수당 5년새 37억 줄줄 섰다

해외 체류·숨진 아동 등에 지급

광주·전남지역에서 최근 5년간 37억 원의 양육수당이 해외에 장기체류 중이거나 숨진 아동 앞으로 지급됐다.

6일 보건복지부가 바른정당 홍철호(경기 김포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에 추수를 두고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아동 451명에게 지난해 1억159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했다. 올해도 1~5월 200명에게 4612만원을 집행했다.

사망한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이 지급됐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20만원(1명씩) 등 모두 330만원 16명의 사망 아동에게 집행됐다.

/연합뉴스

(재)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7-70호

『수산양식기자재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업지원 공고

전남지역 수산양식기자재 및 수산가공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업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련 있는 산업체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6월 12일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내용		지원기관	최대 지원금	기업 부담금
기술 지원	기술 컨설팅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2백만원/건	지원금의 10%
	시제품 제작		8백만원/건	
사업화 지원	홍보 마케팅	전남테크노파크	4백만원/건	
	기업 컨설팅		4백만원/건	
	기술 컨설팅		4백만원/건	
	제품 및 포장디자인, CI, BI, 로고 등		4백만원/건	
	온라인마케팅 지원, 브로셔, 홈페이지, 홍보동영상, B2B 등록 등		4백만원/건	
기업 컨설팅	4백만원/건			

- 신청자격**
○ 전남지역 수산양식기자재 및 수산가공업 분야 연관 기업
-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양식에 따라 신청
* 신청서 교부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http://www.komeri.re.kr>) 및 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ntp.or.kr>) 참조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견적서, 공장등록증,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최종점검 및 지원금 지급 → 사후관리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2017.6. ~ 2017.8.(3개월)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수시 진행)
- 접수장소 :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3로 55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305호
○ 문의처 : [기술지원]
- 담당자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강병모 연구원
- 전 화 : 061-460-5276, 이메일 : bmkang@komeri.re.kr [사업화지원]
- 담당자 : 전남테크노파크 안창준 연구원
- 전 화 : 061-460-5223, 이메일 : pendan@jntp.or.kr